

肅宗의 中脘穴 受灸事 연구
- 『승정원일기』 약방기록을 중심으로 -

¹고흥군보건소 · ²대원한의원
³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⁴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율^{1, 3} · 고대원² · 김현경³ · 차웅석^{3*} · 안상우^{4*}

A Study on CV12 Moxibustion of King
Sukjong(肅宗) of Joseon Dynasty
-Focusing on *Seungjeongwon Ilgi*(承政院日記) Yakbang(藥房)
Records -

Kim Dongryul^{1, 3} · Ko Daewon² · Kim Hyunkyung³
Cha Wungseok^{3*} · Ahn Sangwoo^{4*}

¹Goheung Health Center · ²Daewon Korean Medical Clinic
³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⁴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 To investigate the progress, characteristics, and reasons of CV12 moxibustion that King Sukjong of Joseon Dynasty had experienced 31 years since 1684.

Methods : This study mainly extracted the records and related records about CV12 moxibustion of King Sukjong and relevant records from *Seungjeongwon Ilgi*, and analyzed them. Aside from that, medical books wrote at that time and relevant records were additionally investigated.

Results : King Sukjong cauterized CV12 or other CV12 related acupoints with moxa 21 years out of his 31 years from 1684 to 1714. The cautery period was usually between late January and mid February. He had 100 pieces of moxa for cautery. On the last day of his moxibustion, he cauterized ST36 with moxa. The moxibustion process consisted of the following steps: suggestion or requirement of moxibustion, decision of date and time, and moxa cautery.

In 1684, the reason why King Sukjong cauterized CV12 with moxa was to treat his joint pain and nauseous symptoms. The effect can be found in *Donguibogam*, many other Korean medical books, and other general books at that time. In 1685, he began to cauterize CV12 with moxa to prevent diseases. Since then, most moxa cautery on CV12 had been performed in the same context.

Conclusions : For 21 years, King Sukjong repeatedly cauterized CV12 with moxa. The moxa therapy was conducted to prevent diseases mostly. And King Sukjong had a lot of interest in the therapy. For the reasons, the therapy had repeatedly been performed so long.

Key Words : Seungjeongwon Ilki(承政院日記), King Sukjong(肅宗), CV12(中脘), Moxibustion(灸), Korean Medical History

I. 서 론

조선왕실의료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이다. 왕실의 의료체제나 구성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왕가에서 받았던 치료부터 일반 백성들을 위해 시행된 대민의료정책까지 왕실의학의 여러 모습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왕실에서 먹었던 음식이나 차, 그들만의 특별한 건강유지법 등도 왕실의료연구의 한 축을 이루었다.

특히 왕실의 의료기록과 관련된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조금씩 시작되었으며, 이후 왕조실록과 내의원 연구가 더해지면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¹⁾ 2000년대 이후 왕실기록 중 가장 방대한 양을 자랑하던 『승정원일기』가 웹상에 공개되면서 왕실 의료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승정원일기』를 통해 드러난 왕의 진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기록들은 『조선왕조실록』의 단편적

인 기록들이 주었던 아쉬움을 해소해 주었다.

『승정원일기』 연구는 이후 많은 왕들의 건강과 치료에 관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홍세영이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임상의학의 대강을 연구²⁾한 이래로 인조³⁾, 효종⁴⁾, 현종⁵⁾, 숙종⁶⁾, 경종⁷⁾의 진료 및 치병기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외에도 장렬왕후⁸⁾, 인현왕후⁹⁾, 장희빈¹⁰⁾, 헌경왕후(혜경궁 홍씨)¹¹⁾ 등의 치병기록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진료과정, 질병과 치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당대에 있었던 여러

* Corresponding Authors : Cha Wungseok. 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961-9446
E-mail : chawung@khu.ac.kr
Ahn Sang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672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 +82-42-868-9442
E-mail : answer@kiom.re.kr
Received(19 October 2015), Revised(11 November 2015), Accepted(16 November 2015).

1) 차용석. 왕실의료기록 연구 현황 분석. 제15회 한국의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 pp.89-98.

- 2) 홍세영. 『承政院日記』의 臨床醫學 記錄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3) 김혁규. 朝鮮 仁祖의 治病記錄에 대한 醫史學적 研究 :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 4) 강도현.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통해 살펴본 孝宗의 질병과 사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5) 이상원. 朝鮮 顯宗의 治病기록에 대한 醫史學적 연구 : 禮訟論爭이 顯宗 疾病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6) 고대원. 朝鮮 肅宗의 治病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7) 김동을. 張禧嬪의 죽음에 景宗의 건강에 미친 영향 : 『承政院日記』 醫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8) 박주영. 조선 장렬왕후의 치병기록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 승정원일기의 의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9) 방성혜.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 18(1). pp.1-11.
- 10) 방성혜 외 3인.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장희빈 의안 관련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 27(2). pp.53-62.
- 11) 락영룡. 혜경궁 홍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醫史學적 연구 : 『承政院日記』 내 用藥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정치적 사항들과 왕의 질병간의 관련성을 찾아보는 연구도 승정원일기 기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본고는 이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여러 왕들이 경험한 다양한 진료 가운데 본고에서는 숙종의 중완혈 수구(受灸)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의 19대왕이자 14세에 왕위에 올라 60세에 승하할 때까지 46년간 조선을 통치했던 왕 숙종은 세 차례의 환국을 단행하여 왕실의 권력을 지켰던 강력한 군주로 알려져 있다.¹²⁾ 그의 건강과 관련되어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러 왕들의 질병치료와 사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숙종을 포함시켰으며, 승정원일기의 기록 또한 연구자료에 전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다.¹³⁾¹⁴⁾¹⁵⁾ 승정원일기 기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로는 고대원의 연구가 있는데, 하나는 숙종의 두창치료과정에 관한 연구이고¹⁶⁾, 다른 하나는 숙종의 재위기간동안 있었던 질병과 치료법을 망라한 연구이다.¹⁷⁾ 전자는 하나의 질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후자는 숙종이 앓았던 각각의 질병들을 기준으로 증상, 처방 등을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모두 질병을 기준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가 겪었던 치료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의 치료법 중 승정원일기 기록상 비교적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에 집중했다. 중완혈에 뜸을 뜬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숙종 재위기간 46년의 기록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21년의 기록에서 중완혈 수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한 가지 치료법이 오직 한 왕에게서만 나타난 경우는 그리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종이 어

떻게, 얼마나, 또 왜 이런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본 론

1. 중완혈 수구사 경과

1) 전반적인 수구 경과

숙종은 재위 10년이 되던 1684년 음력 1월 7일(이하 모두 음력) 처음으로 중완혈에 수구치료를 받는다.¹⁸⁾ 이때부터 시작된 숙종의 중완혈 수구사는 그의 재위 40년인 1714년 3월 13일까지 총 31년에 걸쳐 등장한다.(Table 1.)

숙종은 1684년부터 1686년까지 3년간 매해 중완혈에 수구를 한다. 그러다가 1686년 1월13일 수구를 끝으로 3년간 중완혈에 수구한 기록이 없다가 1689년 여름에 다시 중완혈 수구를 한다. 이듬해인 1690년부터 1700년까지 승정원일기 기록자체가 없는 169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중완혈 수구를 하며, 기간도 대부분 1월 하순에서 2월 중순 정도로 일정하다. 1701년에는 중완 수구가 1000장을 넘었으므로 혈위에 변화를 주자고 요청한다. 상완, 기해, 삼리를 언급하는데, 그 중 주로 삼리가 수구에 활용된다. 하지만 앞선 10여년처럼 매년 꾸준히 진행되지는 않는다. 1701년, 1703년, 1708년, 1710년 총 4년만 기록이 남아 있으며, 기간은 모두 전과 마찬가지로 2월 중이다. 1713년, 1714년 두 차례 더 중완혈 수구에 대한 기록이 나오나 전에 보이던 기간상의 유사성은 다소 떨어진다.

이렇게 숙종의 중완혈 수구는 1684년부터 1700년까지 17년 중 14년과 1713년, 1714년, 이렇게 총 16년간 진행되었다. 수구 기간의 유사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예외적으로 8월에 시행된 1689년과 1713년, 1714년을 제외해 총 14년간의 기록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중완혈에 수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01년, 1703년, 1708년, 1710년의 기록은 혈위는 다르지만, 중완을 대신할 혈자리로 언급

12) 고대원. 朝鮮 肅宗의 治病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p.1.

13) 홍성봉. 조선조 역대왕의 수명과 그 사인. 한국인구학회지. 1991. 14(1). pp.35-46.

14) 김정선.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치료를 통해 본 의학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5) 이해웅, 김훈. 조선시대 현종, 숙종, 경종, 영조의 질병과 치료.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 19(3). pp.228-254.

16) 고대원 외 3인. 숙종의 痘瘡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醫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1). pp.43-51.

17) 고대원. 朝鮮 肅宗의 治病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18)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7일, “中腕及左右膝部, 今日仍爲受灸, 而時刻則依前定, 以已正宜當”

Table 1. The Progress of CV12 Moxibustion of King Sukjong.

연도(재위년)	수구기간 ¹⁹⁾	수구장수	비고
1684(10)	1.07 ~ 1.13 2.17 ~ 2.19 12.13 ~ 12.22	100장 50장	1.13일 中腕 수구가 100장을 넘어 三里·絶骨로 혈위 변경하여 1.23일까지 수구
1685(11)	2.10 ~ 2.12		
1686(12)	1.05 ~ 1.13	100장	1.05~1.07에는 臚中穴도 함께 수구함
1689(15)	8.13 ~ 8.25		
1690(16)	2.03 ~ 2.19	100장	2.5~2.15에는 날씨와 숙종의 감기증상으로 잠시 정지함, 마지막날 中腕·三里 수구
1691(17)	1.26 ~ 2.05		
1692(18)	1.25 ~ 2.03		마지막날 中腕·三里 수구
1693(19)	1.20 ~ 1.28		마지막날 中腕·三里 수구
1694(20)	1.19 ~ 1.27		마지막날 中腕·三里 수구
1695(21)	승정원일기 기록 없음		
1696(22)	2.05 ~ 2.13	101장	뜸 개수를 陽數로 하라는 숙종의 명에 따라 101장으로 수구함. 마지막날 中腕·三里 수구
1697(23)	2.03 ~ 2.22		三리를 2.19일에 수구(이후 21, 22 두차례 더 수구하는데 이때는 中腕만 한 것으로 보임)
1698(24)	2.10 ~ 3.02	200장	마지막날 中腕·三里 수구
1699(25)	2.11 ~ 2.25		
1700(26)	2.03 ~ 2.11 9.05 ~ 9.17 ²⁰⁾	100장	마지막날 中腕·三里 수구 中腕·氣海 수구
1701(27)	2.19~2.21		中腕 수구가 1000장을 넘어서 혈위를 바꾸자고 함. 臚中·上腕·氣海·를 수구하기로 했으나 결국 三리만 3일간 수구함
1703(29)	2.02 ~ 2.13		上腕·氣海·三里 수구함
1708(34)	2.10 ~ 2.12		三리 수구함, 마지막날 絶骨도 수구함
1710(36)	2.11 ~ 2.12	14장	三리 7장씩 이틀간 수구함
1713(39)	3.26		
1714(40)	1.16, 1.18, 3.13		

한 자리이고 수구 기간도 유사하기 때문에 중완혈 수구와 의미상 유사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2) 수구전반에 보이는 특징

전체적인 수구 경과를 보았을 때, 본 중완혈 수구사가 갖는 몇 가지 패턴들을 알 수 있다. 우선, 수구기간 상의 유사성이 보인다. 처음 시작했던 1684년과 다시 재개했던 1689년을 제외하고 본다면 대부분의 기록들이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있다. 1701년부터 1710년까지 존재한 4번의 기록 역시 수구 혈자리는 변화했으나 기간만큼은 유사했다. 이처럼 숙종의 중완혈 수구사는 한 가지 치료법이 수년에 걸쳐 동일한 시기에 수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두 번째로 보이는 패턴은 삼리혈의 활용이다. 1690년 수구부터 중완혈 수구 마지막 날에는 중완혈과 삼리혈 수구를 함께 한 기록들이 보인다. 이때 먼저 중완혈 수구를 하고 마지막 장까지 다 끝나면 이어서 삼리혈을 수구하였다.²¹⁾ 처음 삼리혈을 수구한 1690년 기록에 따르면 삼리혈 수구는 왕이 직접 제의했으며,²²⁾ 중완혈 수구가 끝나는 날에 삼리혈에 수구를 하기로 한 것은 의관들의 의견을 알 수 있다.²³⁾ 삼리혈의 활용은 수구 이후 발생한 번열(煩熱)을 강기(降氣)의 효과를 통해 제어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²⁴⁾ 상기 특징은 1701년 중완대신 다른 혈위에 뜸을 뜨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비교적 자주 반

복된다.

또 다른 패턴은 수구 장수와 관련이 있다. 아홉 개도 매년 그 해의 전체 수구 장수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 100장을 기준으로 수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중완혈 수구를 한 1684년 1월에 중완혈의 수구 장수를 100장으로 정하자는 기록이 있으며,²⁵⁾ 1686년에도 100장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채우면 수구를 정지하자고 하였다.²⁶⁾ 한편, 100장을 맞추기 위해 수구 장수를 계산하는 장면도 보인다. 1690년 약방에서는 숙종이 2월 3일부터 5일까지 총 37장을 수구하였으므로 앞으로 63장이 남았는데, 16일부터 매일 15장씩 수구를 하면 19일까지 수구해도 3장이 남으므로 16, 17, 18일 3일간은 16장씩, 19일은 15장 수구를 하자고 제안한다.²⁷⁾ 이처럼 장수를 정확히 100장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이 보이는데, 1696년에는 숙종이 장수를 101장으로 바꾸자고 말하기도 하였다.²⁸⁾ 또 1698년에는 이례적으로 200장 수구를 하였는데, 이때도 숙종이 의관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200장 수구를 명하여 그렇게 진행되었다.²⁹⁾

3) 중완혈 수구의 구체적인 진행과정

숙종의 중완혈 수구는 1684년부터 1714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매년 수구 장수나 혈위 등에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 수구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을 많이 보인다. 이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해당 기간 매일 수구를 한 것은 아니다. 이 기간 중 정한 날에만 수구를 했으며, 여기서는 그 시작 날과 끝 날을 기간의 시작과 끝으로 기록하였다.

20) 이 기간의 수구 기록을 보면, 처음 수구를 제안했을 때만 해도 중궁전의 수구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경과를 보면 숙종에게 수구 후 안부를 묻는 형태를 보인다. 이에 저자는 이 기간의 수구도 우선 숙종의 수구로 보고 표에 포함시켰다.

21) 『승정원일기』 숙종16년 2월 19일, “中腕畢灸之後, 仍灸三里之意”

22) 『승정원일기』 숙종16년 2월 3일, “上又曰, 三里, 乃是降氣之穴, 亦灸三七壯, 似好矣”

23) 『승정원일기』 숙종16년 2월 16일, “則當初所定百壯之數, 可以畢灸, 仍灸三里七壯, 宜當云”

24) 『승정원일기』 숙종11년 2월 14일, “連日受灸之餘, 抑或有煩熱之候乎?”, 『승정원일기』 숙종12년 1월 12일, “上曰, 前此受灸時, 每有煩熱之候, 不能久灸”

25)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13일, “中腕穴, 已準百壯, 當姑停止矣”

26) 『승정원일기』 숙종12년 1월 12일, “明日受灸, 當準百壯, 此後, 則停止宜當”

27) 『승정원일기』 숙종16년 2월 16일, “自初三日至初五日, 受灸三十七壯, 則百壯之內, 當餘六十三壯, 每日以十五壯計之, 則自今日至十九日, 餘數不過三壯, 爲此三壯, 又於二十日受灸, 則不無勞動之慮, 議于醫官, 則皆以爲, 自今日至十八日, 每日各加一壯, 十九日又灸十五壯”

28) 『승정원일기』 숙종22년 2월 5일, “受灸之數, 必以陽數爲之, 故爲百一壯矣”

29) 『승정원일기』 숙종24년 2월 10일, 上曰, 中腕穴, 異於他穴, 多灸爲可, 今年, 則受灸二百壯, 何如? 金有鉉曰, 玉體受灸二百壯, 似過矣. 上曰, 二百壯, 不多矣

① 수구 제안, 혹은 수구 요청

수구는 치료법의 일종이다. 따라서 탕약이나 식치(食治), 수침(受鍼) 등 다른 치료법들처럼 내의원의 제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다. 숙종의 첫 중완혈 수구 역시 내의원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³⁰⁾ 내의원이 제안한 경우는 제안 이유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증상이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제안한 경우이다. 1684년 첫 중완혈 수구를 비롯하여, 1713년³¹⁾ 수구 등이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증상에 대한 언급 없이 수구를 한 경우이다. 1685년에는 지난겨울 중완혈 수구를 멈추었다가 날씨를 보고 다시 재개하기로 했었다고 말하며 수구를 제안한다.³²⁾ 그 외에 1686년 이후로 많은 경우가 특정한 증상 언급 없이 내의원에서 수구를 제안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한편 숙종이 스스로 중완혈 수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1689년이다. 당시 3년간 멈추었던 숙종의 중완혈 수구가 재개되었는데, 이때 수구는 숙종이 직접 명한 것이었다.³³⁾

② 날짜 및 시간 선정

수구를 제안, 혹은 요청하여 이를 받아드렸다면 이제 수구할 날을 선정한다. 주로 약방도제조가 문안을 드릴 때 본 이야기를 꺼내는데, 보통 실제 수구를 시행한 날보다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10일 이상 전에 날짜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다. 수구 날짜 선정은 주로 내의원에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왕이 선택하는 형태를 취한다.

수구 날짜를 선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준호의 논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날씨, 달의 모양, 절기, 人神, 建除十二神, 瘟癘日, 기타 길일 등이 왕실에서 수구 날짜를 정하는데 작용한 요소로 보았다.³⁴⁾ 각

요소별 경중에는 차이가 있으나 숙종의 중완혈 수구 날짜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구 날짜를 정하였으나 다시 반복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당일의 날씨 변화이다. 시기상의 기후는 미리 예측하여 날짜를 정하는데 고려할 수 있지만 당일 변화되는 날씨까지는 확실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통은 내의원에서 계를 올려 당일 날씨를 감안하여 수구일 변경을 요청하며,³⁵⁾ 수구할 시간까지 다 정한 상황에서³⁶⁾ 날씨 때문에 수구를 다음날로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³⁷⁾ 반복의 또 다른 이유로는 왕의 건강상태를 들 수 있는데, 원래 수구하기로 했던 증상 외에 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 날짜 변경을 요청하였다.³⁸⁾ 특히 열 증상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병치레 후 몸에 남아있을 열을 고려해서 날짜 변경기도 하고,³⁹⁾ 번열이 일어날 경우에는 아예 수구를 정지하기도 하였다.⁴⁰⁾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해당 날짜가 돌아오면 수구 시각을 정하였는데, 수구 시간은 대부분 午時로 정하여 진행하였다.

③ 수구입시(受灸入侍)

날짜와 시간까지 모두 정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구를 시행한다. 아쉽게도 승정원일기에 수구입시 상황이 매번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은 아니다. 보통은 수구 후 문안을 한 기록이 남아있어 해당 일시에 수

30)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6일, “藥房再啓曰…而諸醫等, 又以爲中腕…今日試灸爲宜云”

31) 『승정원일기』 숙종39년 3월 25일, “與諸御醫入診, 詳察症候, 議定可進之藥, 鍼灸當否宜當, 敢來問安, 竝此仰稟”

32) 『승정원일기』 숙종11년 2월 8일, “去冬中腕穴受灸停止之日, 有更觀日氣加灸之教”

33) 『승정원일기』 숙종15년 8월 13일, “藥房啓曰, 自上下教, 秋涼已生, 依前議定, 中腕受灸”

34) 오준호, 차웅석, 김남일.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침구택일의 활용 방법. 한국의사학회지. 2009. 22(1). pp.15-24.

35) 『승정원일기』 숙종16년 2월 6일, “今日又當受灸, 而自曉雨下, 尚未開霽, 如此陰濕之日, 醫家, 例忌針灸, 今日受灸, 似當姑停”

36) 『승정원일기』 숙종11년 2월 13일, “藥房啓曰…今日受灸時刻, 依前定以午初, 宜當”

37) 『승정원일기』 숙종11년 2월 13일, “陰雨如此之時, 受灸, 醫家所忌, 今日則停止”

38) 『승정원일기』 숙종16년 2월 15일, “明日, 卽受灸吉日, 而感冒之候, 或未復常, 則不宜受灸”

39) 『승정원일기』 숙종11년 12월 9일, “如或有餘熱, 則此時受灸, 有似不便, 姑待上候平復, 自正月望後, 始爲受灸, 宜當”

40) 『승정원일기』 숙종12년 1월 12일, “前此受灸時, 每有煩熱之候, 不能久灸”

구를 했다는 사실 정도만 남아있다. 왕의 건강이 매우 안 좋거나, 수구 자리에서 중요한 정사가 논해졌을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수구입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편이다.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살펴본 보편적인 수구입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오시(午時)에 임금께서 흥정당에 나아가다. 약방도제조 이하 기사관(記事官), 의관(醫官)들까지 수구를 위해 입시(入侍)하다. 도제조 최석정(崔錫鼎)이 안부를 물은 뒤 의관 권성징(權聖徵)의 점혈(占穴) 허가를 구하고 점혈을 한다. 이후 의관 최성임(崔聖任)이 수구할 혈위인 좌우삼리혈을 일컬으며 수구를 고한다. 이어서 좌우 삼리혈에 수구한다.’⁴¹⁾

수구하기로 정한 시간에 임금과 내의원 신하들이 조우하면, 우선 도제조가 안부를 묻는다. 이 때 별다른 문제가 없어 수구를 그대로 진행해도 될 것이라 여기면 임금의 허가 하에 의관의 점혈과 수구가 진행된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 점혈 전에 열린 창문을 닫는다던가, 진맥을 하는 경우도 있다.⁴²⁾ 또 수구를 하기에 앞서 기존에 정했던 수구 장수를 재차 확인하기도 한다. ⁴³⁾ 수구를 마치고 나면 수구 후 복용할 약에 대해 논하거나 다음날 수구할 장수, 이후의 수구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한다.⁴⁴⁾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루의 수구가 끝이 난다. 수구가 끝나면 보통 약방에서 안부를 물으며, 受灸 후에 生脈散을 진여하는 게 일반적이다.⁴⁵⁾ 그다음 수구 날짜는 처음에 정한 날짜가 있으면 이를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의 수구가 끝났을 때 새로 정한 날짜를 따른다. 날짜를 정하는데 있어서 하루간격, 혹은 이틀간격 등 기간 간격에 중요도를 두기 보다는 앞서 수구 날짜를 정할 때 고려했던 날씨, 달의 모양, 절기 등에 더욱 중요도를 둔다. 보통 한 해에 정해 놓은 수구장수, 여기서는 보통 100장을 기준으로 수구장수와 날수가 정해진다.

2. 중원혈 수구의 원인

1) 숙종의 질환

숙종은 재위 10년이 되던 1684년 1월 7일 처음으로 중원혈에 수구치료를 받는다.⁴⁶⁾ 당시 그는 관절의 통증, 해수, 오심 등을 앓고 있었는데⁴⁷⁾ 모두 하루 이틀 된 증상이 아니었다. 사실 이 증상을 겪게 된 배경으로 내의원 의관들은 그가 수개월 전에 겪었던 큰 병에 대해 언급하곤 하였다. ‘큰 병을 앓고서’ 혹은 ‘큰 병의 여파로’ 등으로 설명한⁴⁸⁾ 이 병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약 3개월 전인 1683년 10월 무렵으로 돌아가 보았다.

1683년, 숙종 재위 9년이 되던 해 10월 무렵 내의원에서는 시약청을 세울 정도로 긴급하게 숙종의 질병 치료에 힘쓴다. 처음 그가 보인 증세는 외감 증상이었다. 10월 17일부터 두통과 오심 등의 증상⁴⁹⁾을 보였는데 이후 열 증세가 심해지면서 도제

矣。今日受灸十一壯，明日明明日，各十五壯，則合爲四十一壯，初八日，以上弦拘忌，不宜受灸，初九日至十二日，滿百一壯矣。百一壯畢灸後，三里穴，又當受灸，則十三日，當爲畢灸矣”

41) 『승정원일기』 숙종34년 2월 10일, “午時, 上御興政堂, 受灸時, 藥房都提調崔錫鼎, 副提調金演, 假注書鄭來周, 記事官李基聖·呂命學, 醫官金有鉉·崔聖任·李應斗·權聖徵·朴昌瑞·吳重高·李得英入侍。錫鼎進伏曰, 日氣陰冷, 聖體, 若何? 上曰, 無事。錫鼎曰, 前冬有脚部不平之候, 今則何如? 上曰, 不復有之。錫鼎曰, 使權聖徵〈占〉受灸穴, 何如? 上曰, 唯。占穴後, 崔聖任曰, 三里左右穴受灸矣, 敢達。上受灸一七壯”(본문에 기재한 내용은 상기원문내용에서 요점만 정리한 것)

42) 『승정원일기』 숙종22년 2월 5일, “上曰, 受灸時, 閉窓, 可也。李世華曰, 前窓先閉, 似好。上曰, 閉之。金有鉉, 進跪上前診脈。白光玘·鄭惟覺, 以次入診。金有鉉曰, 左右六脈, 極爲和平安靜矣”

43) 『승정원일기』 숙종24년 2월 11일, “南九萬曰, 壯數, 定以幾壯乎? 上曰, 定以十五壯。鄭惟覺, 告受灸, 朴星瑞, 付艾, 上受灸十五壯畢, 攬衣起坐, 諸醫皆出”

44) 『승정원일기』 숙종22년 2월 5일, “畢灸後, 南九萬曰, 例於受灸後, 生脈散進御, 而恐有助熱之患, 故以黑豆竹葉湯煎進之意, 敢啓。又曰, 考見前日受灸時壯數, 則一百一壯

45) 『승정원일기』 숙종32년 2월 5일, “例於受灸後, 生脈散進御”

46)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7일, “中腕及左右膝部, 今日仍爲受灸, 而時刻則依前定, 以已正宜當”

47)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7일, “左右膝部及左邊內踝足指刺痛之處·咳嗽惡心之候”

48)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10일, “況大病之餘”,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12일, “是何等大病, 而落痲之後, 氣血未完” 외 다수

조 이하 의원들까지 모두 상황을 긴박하게 여겼다.⁵⁰⁾ 의원들은 이 병이 두창임을 확신했다.⁵¹⁾ 당시 그의 나이는 22세였으며 아직 두창을 겪지 않았던 터였다. 21일, 병증이 발생한지 5일째가 되어 처방을 화독탕으로 바꾸었는데,⁵²⁾ 이는 5일이 되도록 두창 특유의 피부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⁵³⁾ 22일 결국 시약청을 세우기에 이른다.⁵⁴⁾ 다행스러운 점은 숙종의 두창 증세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⁵⁵⁾ 11월 5일 시약청을 혁파할 때까지 그의 증세는 대부분 평순하였으며, 두창의 전변과정 역시 일반적인 두창의 순증 과정을 따라 진행되었다.⁵⁶⁾

이후 인후통⁵⁷⁾, 열증⁵⁸⁾, 해수⁵⁹⁾ 등 두창 이후 약해진 몸에 몇몇 증세가 발생하였으나 이 역시도 11월 24일 즈음 완전히 사라졌다.⁶⁰⁾ 한편 증세가 사라진 24일부터 약해진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팔물탕 가감방을 복용한다.⁶¹⁾ 12월 3일까지 총 10일간 10첩의 팔물탕 가감방을 복용하였으며, 이후 5첩을 추가로 더 복용키로 하였다. 당시 의원들은 왕이 큰 병을 치른 이후 아직 기혈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에 본 처방을 더 복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⁶²⁾

비교적 쉽게 두창을 이겨냈으나 아직 기혈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맞이한 12월이었다. 그리고 이즈음 숙종은 본인의 질병 외에 다른 우환을 겪게 된다. 우선 당시 그의 아내였던 인현왕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인현왕후에게 발생한 번열, 소변불리, 부창(浮脹) 등의 증세는 시약청을 세워야 할 정도로 좋지 않았다.⁶³⁾ 그리고 12월 5일 어머니 명성왕후가 승하한다.⁶⁴⁾ 아직 본인의 건강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정사까지 발생한 것이었다. 당시 의관의 말처럼 숙종은 두창이라는 큰 병을 앓은 뒤였으며 편히 잠들지도 못하고 해수까지 겪고 있었다.⁶⁵⁾ 어머니의 상을 치루는 동안에도 그의 몸 상태는 여전히 원기허약이었다.⁶⁶⁾

이때 발생한 해수는 상당히 오랫동안 숙종을 괴롭힌다. 해수증이 발생한 이후 거의 매일 같이 약방에서 문안을 올 때마다 해수증세에 대해 물었으며, 이렇게 12월 초에 시작된 해수는 12월 말에 되도록 낮지 않는다.⁶⁷⁾ 이듬해 1월 3일, 그의 해수 증세는 여전하였다. 그리고 이즈음 숙종은 오심, 좌측무릎의 불편감 등을 더불어 호소하였다.⁶⁸⁾ 다음날 오심의 증세는 더욱 심해졌으며, 우측무릎과 좌측 발목 부위의 통증까지 발생하였다.⁶⁹⁾ 식사를 제대로 못하였으며 잠자리까지도 편치 않았다.⁷⁰⁾

특히 오심 증세는 자못 심각했다. 그는 약은 물론이거니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⁷¹⁾ 인삼속미

49) 『승정원일기』 숙종9년 10월 19일, “伏聞自上自再昨有外感頭痛之候, 惡心兼發”
50) 『승정원일기』 숙종9년 10월 20일, “卽者伏聞入侍醫官等所傳之言, 熱候有加云, 莫重診候之事”
51) 『조선왕조실록』 숙종9년 10월 18일, “上不豫, 卽痘疾也”
52) 『승정원일기』 숙종9년 10월 21일, “藥房再啓曰, 臣等, 入診退出後, 與諸醫相議, 則以爲化毒湯”
53) 『동의보감-소아편』 「化毒湯, “治痘出不快, 且令稀少”
54) 『승정원일기』 숙종9년 10월 22일, “與尋常感冒未寧之候, 有異, 其在事體, 不可不別設侍藥廳”
55) 『승정원일기』 숙종9년 10월 22일, “自上症候, 雖極平順,”
56) 고대원 외 3인. 숙종의痘瘡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醫案 연구. 한국사학회지. 2012. 25(1). pp.43-51.
57) 『승정원일기』 숙종9년 11월 4일, “咽喉不利之候”
58) 『승정원일기』 숙종9년 11월 10일, “自上餘熱升降之候, 猶未夫祛”
59) 『승정원일기』 숙종9년 11월 17일, “餘熱咳嗽, 猶未夫愈”
60) 『승정원일기』 숙종9년 11월 24일, “上候, 今雖日向平復”
61) 『승정원일기』 숙종9년 11월 24일, “調保氣血之劑, 不可不進御…則八物湯, 加麥門冬各一錢, 黃芩酒炒七分, 連進五貼, 爲宜云”
62)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4일, “自上大病之餘, 氣血未復, 而觸寒勞動, …八物湯, 進御之數, 昨日已滿十貼, 諸醫皆以爲, 此藥有益而無害, 不可不連進云, 更限五貼, 當爲煎

入.”
63)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3일, “侍藥廳啓曰, 伏聞慈殿症候, 夜來煩熱, 特甚,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4일, “小便亦似通利, 而浮脹之氣”
64)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5일, “大行王大妃初喪”
65)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6일, “夜來寢睡不安, 咳嗽比前有加”, “大病之餘, 咳嗽根柢已深”
66)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11일, “藥房再啓曰…脈度微數, 元氣虛弱”
67)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27일, “藥房啓曰, 伏未審日來, 聖體調攝, 若何, 咳嗽之候, 更無加減乎?”
68)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3일, “咳嗽之疾, 惡心之證, 加減”, “膝部受灸後, 凝聚之氣”
69)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4일, “惡心之候, 比前有加, 右邊膝部及左邊內外足踝近處, 亦有酸痛”
70)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4일, “水刺驅進, 寢睡不安云”
71)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5일, “昨日湯劑, 以惡心之

음을 사용하여 비위 치료를 해보았으나⁷²⁾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⁷³⁾ 1월 6일 소시호탕 가감방을 처방하였으나 이마저도 오심이 심각하여 복용치 못한다.⁷⁴⁾ 증상의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심지어 왕이 약까지 복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내의원에서는 탕약 외에 다른 치료법을 제안하는데 이게 바로 ‘중완혈 수구’였다.

중완혈 수구가 처음 언급된 이날의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월 5일 밤, 숙종은 자신의 관절 통증들 때문에 잠을 편히 들 수가 없었다. 무릎은 통증은 물론이거니와 좌측 발목, 발가락 부위의 통증모두 전날보다 배로 심해졌기 때문이었다.⁷⁵⁾ 또 수일 전부터 그를 괴롭히던 오심 증상 역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⁷⁶⁾ 이를 들은 의관들은 치료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오심 치료를 급선무로 두는 것이었다.⁷⁷⁾ 당시 그의 관절의 통증은 뜸치료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었다.⁷⁸⁾ 따라서 진척이 없는 병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하였다. 이에 소시호탕과 골피죽여탕 합방에 적복령과 맥문동을 가한 처방을 활용하여 오심을 치료하고자 하였다.⁷⁹⁾ 두 번째는 중완혈에 뜸을 뜨자는 것이었다. 중완혈이 통풍(痛風)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데다가 개위진구(開胃鎮嘔)시키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이었다.⁸⁰⁾

이렇게 치료가 결정되고 이튿날,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왕이 약을 복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숙종의 오심증세가 차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방까지도 역해서 복용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이다.⁸¹⁾ 결국 탕약 치료를 포기하고 기존에 해왔던 좌우 무릎 부위 수구와 더불어 중완혈 수구만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⁸²⁾ 이튿날 왕은 ‘치료에 별 차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⁸³⁾

뜸 치료를 한차례 더 수행한 그 다음날이었다. 1월 9일에 이르러 드디어 숙종의 증상에 차도가 보이기 시작한다.⁸⁴⁾ 이날부터는 무릎 부위에 뜸뜨던 것도 그만두고 중완혈에만 집중적으로 뜸을 뜨게 된다.⁸⁵⁾ 이후 13일까지 계속 중완혈에 뜸을 뜨게 되는데 그의 증세 또한 날이 좋아진다. 13일에는 중완에 벌써 100장 가까이 뜸을 떴으니 더는 중완에 뜸을 뜰 수 없다⁸⁶⁾하여 다음부터는 삼리와 절골혈에 뜸을 뜨기로 한다.⁸⁷⁾ 이후 수구기록은 이날 23일까지 보인다.

27일 즈음 숙종은 약방의 문안 인사에 증세들이 완전히 나아졌다고 말한다.⁸⁸⁾ 한동안 그를 괴롭혔던 증상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다. 한편 그로부터 20일 정도 뒤인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숙종은 다시 한 번 중완혈에 수구를 하게 된다. 17

症, 不能進御, 水刺, 日漸厭進”

- 72)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5일, “人蔘粟米飲, 最宜於調補胃氣”
- 73)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6일, “惡心之症, 久未鎮定, 昨夕以後, 全無所進”
- 74)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7일, “適因嘔氣, 不得進御矣”
- 75)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6일, “夜來膝部及左邊內踝足指等處, 刺痛之候, 比昨倍甚, 達夜不得寢睡”
- 76)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6일, “惡心之症, 久未鎮定, 昨夕以後, 全無所進”
- 77)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6일, “則卽今惡心之候, 最爲切急”
- 78)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6일, “膝部痛處, 則自當施灸責效”
- 79)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6일, “小柴胡湯, 合橘皮竹茹湯, 加赤茯苓·麥門冬各一錢, 連進三貼, 宜當云”
- 80)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6일, “又以爲中腕, 主治痛風等症, 兼有開胃鎮嘔之效, 今日試灸爲宜云”

- 81)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7일, “而惡心之候, 姑無加減而湯劑, 適因嘔氣, 不得進御矣”
- 82)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8일, “中腕及左右膝部, 今日仍爲受灸”
- 83)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8일, “答曰, 知道. 症候與昨一樣矣”
- 84)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8일, “答曰, 知道. 左右膝部, 日漸差減, 咳嗽惡心之候, 亦有差勝之效矣”
- 85)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9일, “今日受灸, 膝部則姑爲停止, 中腕一穴仍灸, 而時刻則定以卯初”
- 86) 100장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의서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東醫寶鑑』 「鍼灸篇·任脈流注及孔穴」에서 중완을 설명할 때 ‘灸二十七壯, 至一百壯’이라 하여 그 장수를 100장으로 제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87)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13일, “中腕穴, 已準百壯, 當姑停止矣. 諸醫皆以爲, 此後三里·絕骨兩穴, 不可不受灸, 而十六日爲吉云”
- 88)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27일, “藥房啓曰, 伏未審數日, 聖體調攝, 若何? 寢睡·水刺及起居之節, 日漸復常否? 臣等憂慮未地, 敢來問安. 答藥房曰, 知道. 所患今已快愈矣”



Fig. 1. The reason of the 1st CV12 Moxibustion

일 기사에 따르면 당시 증완혈 수구를 통해 치료하고자 했던 숙종의 증상은 무릎의 통증과 해수였다.⁸⁹⁾ 이튿날인 2월 18일, 도제조 김수홍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땀을 많이 뜨지 않는 것이 좋으니 원래 정했던 증완혈 受灸 100장을 취소하고 대신 가을에 수구를 하자고 아뢴다. 그렇게 17일에 15장, 18일과 19일에 각각 18장씩 하기로 결정하고⁹⁰⁾ 19일 수구를 마지막으로 1월부터 시작되었던 숙종의 첫 번째 증완혈 수구사는 이렇게 끝이 난다.

상기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Fig. 1.) 1683년 10월부터 두창을 앓은 숙종은 이후 두창은 나아졌으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상태에서 가족사까지 겹치면서 건강 회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그에게 해수, 무릎·발목 등의 하지관절 통증, 오심 등의 증세가 나타났으며 쉬이 낫지 않았다. 내의원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모색하다가 통풍을 치료하고 개위진구의 효능이 있는 증완혈 수구를 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684년 1월 7일부터 증완혈 수구가 시작된다. 이후 숙종의 증세는 날로 좋아졌으며 1월 13일까지 총 100장,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50장, 도합 150장의 땀을 증완혈에 뜨고서 그의 첫 번째 수구 치료를 마무리하게 된다.

89) 『승정원일기』 숙종10년 2월 17일, “金壽興進曰, 脚部所患及咳嗽, 近復如何”

90) 『승정원일기』 숙종10년 2월 19일, “壽興曰, 中脘受灸, 初以百壯定奪, 而即今日氣漸暖, 不可多灸. 諸醫等皆以爲, 待秋更灸, 宜當云, 此言似是矣. 上曰, 依爲之. 壽興曰, 昨日已灸十五壯, 今日十八壯, 明日十八壯, 分排以灸, 則當爲五十壯耳. 上曰, 依此爲之”

2) 증완혈 수구 효과에 대한 당대의 인식

숙종의 증완혈 수구에 대해 의관들은 증완혈 수구가 ‘통풍 치료’와 ‘개위진구’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단지, 당시 숙종이 다른 부위에 수구를 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었고, 또 오심으로 인해 탕약을 복용하지 못한 상황적 이유 때문이었을까? 여기서는 이러한 의문점의 답을 찾아보기 위해 의관들이 말했던 증완혈 수구의 ‘효과들’에 대해 당대의 생각을 조금 더 알아보았다. 먼저 당대 조선의 의서를 통해 위의 효과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 이 효과들이 과연 당시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들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대의 여러 문집들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았다.

증완혈 수구의 개위진구효과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대부분 ‘開胃鎮嘔’라는 완전히 동일한 단어로 기록된 것은 아니나 오심구토를 막는다는 위로 음식이 소화된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유사 표현과 넓게는 소화기 질환에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다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숙종이 치료를 받았던 시기는 17세기인데, 17세기 초 발간된 관찬의서 『동의보감』에는 소화기 질환에 증완혈에 땀을 뜨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록이 『동의보감』 「잡병편·내상문」에 있는 기록인데, 여기서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가슴과 배가 그득하고 얼굴이 누렇게 뜰 때 증완혈을 수구 하라고 하였다.⁹¹⁾ 그 외에도 구토(嘔吐), 객란(癘

91) 『동의보감』 「雜病扁·內傷門」 鍼灸法, “飲食不多, 心腹膨脹, 面色萎黃, 世謂脾腎病, 宜灸中脘”

亂), 창만(脹滿) 등 다양한 범주에서 중완혈을 활용
토록 하였다.⁹²⁾

이보다 조금 앞서 발간된 관찬 의서 『의림촬요』
(1635)에도 소화기 질환에 중완혈에 뜸을 뜨라는
기록이 보인다. 특히 반위증을 치료할 때,⁹³⁾ 한산
(寒疝), 창만(脹滿), 구토(嘔吐), 부진음식(不進飲食)
등의 증상으로 寒邪가 下焦에 있는 때,⁹⁴⁾ 락란증을
치료할 때⁹⁵⁾ 등에 중완혈 수구를 활용하라고 설명
한다. 또 그보다도 200여년 앞선 『의방유취』(1445)
의 경우 손설(殮泄), 소변삼체(小便澀滯) 등의 증상
으로 비위가 허한(虛寒)한 경우,⁹⁶⁾ 휴식리(休息痢)
증상을 보일 경우,⁹⁷⁾ 장한(腸寒)하여 창만병(脹滿病)
이 생긴 경우,⁹⁸⁾ 토역(吐逆)이 멎지 않는 경우⁹⁹⁾ 등
에서 중완 수구법을 설명한다. 사실 중완혈의 이와
같은 효과는 동아시아 의서들 중 중완혈 수구와 관
련하여 가장 오래된 기록인 『침구갑을경』에도 나와
있다. 여기서 중완혈은 위창(胃脹), 음식불화(飲食不
化), 복창불통(腹脹不通) 등의 소화기 질환에 활용하
는 혈위로 기재되어 있다.¹⁰⁰⁾

이처럼 중완혈 수구법은 조선시대에 이미 소화기
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몇몇 사료들은 중완혈 수구가 의서에만 존재
하는 치료법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활용된 치료법이
었음을 보여준다. 17세기 문신이었던 이민서(李敏
紱, 1633~1688)의 문집인 『서하집(西河集)』에는 다
음과 같은 시가 남아있다.

屏針仍却藥。置柱腹中央。 침을 물리치고 이내
약도 물리치니 배 한 가운데 심지만 남았다.

蓄艾三年久。緣臍四寸強。 쑥 쌓아둔 지 3년이오
배꼽에서 이어진 지는 4촌 남짓이다.

奇功須積日。煖氣自回陽。 기이한 공로가 모름지기
여러 날이오. 따뜻한 기운이 스스로 양기를 돌린다.

飽喫鹽州飯。從今絕內傷。 염주반을 포식하였는
데 오늘날에 이르러 내상에서 헤어 나온다.¹⁰¹⁾

구중완희제(灸中脘戲題)라는 제목의 이 글은 이민
서가 중완혈 수구를 주제로 지은 시이다. 희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라 주제에 대해 유희를 목적으로 쓴 글
인데, 중완에 뜸을 뜨는 것이 음식으로 인한 내상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민서와 비슷한 시기의 살았던 문신 임영(林泳,
1649~1696)은 자신의 편지글에 중완혈 수구에 대
한 기록을 남겼다. 그가 막대숙에게 보낸 편지 글을
보면 자신의 아우가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복통으로
고생하였는데 중완에 뜸을 천장 뜬 공로로 자못 편
안해진 것 같다고 하였다. ¹⁰²⁾ 한편 통신정사(通信
正使)로 일본에 다녀온 조엄(趙巖 1719~1777)은
일본 왕환 기록인 『해사일기(海槎日記)』에 중완에
뜸을 뜬 기록을 남겼다. 당시 입맛에 맞지 않는 음
식과 배멀미 등으로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었는
데,¹⁰³⁾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록 중에 중

92) 오준호, 안상우.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침중완혈수법
(鍼中脘穴手法)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10. 27(2).
pp.38-39.

93) 『의림촬요』 「嘔吐門」, “反胃兩乳下各一寸臍上一寸二十壯
又內踝下三指稍斜向前三壯中脘下三足三里也各灸七壯或九
壯得効嘔吐反胃等門”

94) 『의림촬요』 「歷代醫學姓氏·儒醫」, “治一婦病寒疝自臍下上
至心皆脹滿攻痛而脇疼尤甚嘔吐煩滿不進飲食兩手脈沈結不
調公曰此由寒在下焦宜亟攻其下無攻其上爲灸章門氣海中脘”

95) 『의림촬요』 「霍亂門」, “治霍亂轉筋欲死氣已絕惟腹中有煖
氣者以塩填滿臍中令實灸塩上二七壯一方不計壯數立蘇名神
關穴又灸氣海二七壯得効方正傳灸氣海天樞中脘四穴立愈”

96) 『의방유취』 「傷寒門十一·儒門事親」 凡在表者皆可汗式,
“皆曰脾胃虛寒故耳。豆蔻·烏梅·罌粟殼·乾薑·附子, 曾無一效,
中脘臍下, 灸已數千儒門事親傳十.”

97) 『의방유취』 「總論一·儒門事親」 偶有所遇厥疾獲瘳記, “此
休息痢也, 宜灸中脘及左右穴, 臍下氣海及膀胱穴, 以三里引
之, 每年當冬至·夏至日灸之. 前後僅萬餘壯.”

98) 『의방유취』 「心腹痛 衛生寶鑑」 膜脹治驗, “臟寒生滿病. 大
抵陽主運化, 飲食倦勞, 損傷脾胃, 陽氣不能運化精微, 聚而
不散, 故爲脹滿, 先灸中脘穴, 乃胃之募, 引胃中生發之氣上
行.”

99) 『의방유취』 「翻胃門二·簡奇方」 嚴氏濟生續方, “服藥未應
者, 得效方治吐逆不止. 宜灸中脘, 足三里, 各灸七壯或九壯,
其效尤著焉.”

100) 오준호, 안상우.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침중완혈수법
(鍼中脘穴手法)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10. 27(2).

p.36.

101) 『서하집(西河集)』 「灸中脘戲題」. 번역부분은 본고 저자
의 번역.

102) 『창계집(滄溪集)』 「答朴大叔」, “弟今年來病益痼. 自春
初至中夏. 腹痛目疾. 頻頻發作. 殆無寧日. 此兩月.
腹中幸少安. 似是中脘千壯之力”

완혈에 수구를 하였다. 그는 조국을 떠나온 뒤로 먹은 탕제가 백 여첩 가량인데 그 중 보중제가 반이며, 중완에 뜬 뜸도 수백 장이 넘는다고 하면서 병이 크게 덧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치료한 연유로 생각하였다.¹⁰⁴⁾

이처럼 당대에 소화기 질환에 중완혈에 뜸을 뜬 기록은 의서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문집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 중완은 필시 비위를 대표하는 혈자리였으며,¹⁰⁵⁾ 앞서 숙종의 의관들이 말한 ‘개위진구’의 효능 역시 이상의 여러 기록들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통풍을 치료하는 효과는 개위진구의 효과만큼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 빈도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분명 당대 사람들이 중완혈 수구를 떠올렸을 때 소화기 질환 치료만큼 주로 생각하는 치료 효과는 아니었던 것 같다. 『동의보감』의 기록만 해도 중완혈 수구가 ‘통풍’이라든지 ‘하지관절의 통증’을 치료한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관절 통증에 중완혈을 활용한 예는 허임의 『침구경험방』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침구경험방』에서는 사지의 동통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중완혈을 눈에 띄게 사용하였다. 오준호는 이러한 쓰임을 『동의보감』에서 보이는 중완혈이 담음과 적취를 제거하는 본래의 효과를 응용한 독창적인 방법이며, 중완혈에 있어서 『동의보감』 침구법과 『침구경험방』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주목하고 있다.¹⁰⁶⁾ 비록 『침구경험방』에서는 중완혈 침법으로 본 증상을 설명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만큼은 구법으로 보아도 상통할 것으

로 여겨진다.

사지의 통증은 아니나 담음과 관련된 통증 증상에 중완에 수구를 한 기록은 숙종의 장인 민유중(閔維重, 1630~1687)의 글에서도 보인다. 그가 기미년(1679년) 정월 11일에 쓴 기록에 따르면, 평소 담질(痰疾)이 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사람이 담질로 인해 지난겨울부터 담이 격간(膈間)에 응결되어 통증이 배와 옆구리에 이르고 피부가 베이는 듯한 통증까지 도달하여 한 달여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중완에 여러 차례 뜸을 뜨고 차도를 보였다는 것이다.¹⁰⁷⁾ 중완을 담음으로 인한 통증 질환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동의보감』이나 침구경험방의 기록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중완혈 수구 반복의 원인

숙종이 처음 중완혈에 수구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았다. 한편, 숙종은 그 후로도 수 십년에 걸쳐 중완혈에 수구를 한다. 그가 계속해서 하지관절통 오심과 같은 증상을 반복적으로 가졌던 것일까? 여기서는 이후로도 수년간 반복된 중완혈 수구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1684년 2월 첫 중완혈 수구를 정지하면서 가을에 다시 수구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이다. 필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를 해왔던 왕실의 의료진행과정상 이처럼 추후의 치료를 약속하는 방식은 특별한 경우이다. 의관들은 그해 가을에도 동일한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날 거라 예측한 것일까? 두 번째는 1685년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완혈 수구에 대해서이다. 숙종은 이후로 거의 20여 년간 수구를 하였으며, 그것도 항상 1~2월 즈음이었다. 그리고 그 20여 년이 지나 어느 날부터는 중완혈 수구를 그만두었다.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① 질병의 예방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대해 찾아본 바는 다음과

103) 『해사일기(海槎日記)1』 계미년 10월 6일, “上下諸人。多患水疾。輕者接席。昏眩不能起坐。重者惡心嘔吐。不省人事”

104) 『해사일기(海槎日記)2』 계미년 11월 24일, “今日服補中益氣湯。灸中腕五七壯。自出行後。所服湯劑。殆近百貼。而補中之劑居其半。中腕之灸。亦過數百壯。病根雖未祛。姑不大段添加者。其亦賴藥效而然耶。詩人所云藥餌扶吾隨所之者。正謂此也”

105) 오준호, 안상우.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침중완혈수법(鍼中腕穴手法)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10. 27(2). p.37.

106) 오준호, 안상우.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침중완혈수법(鍼中腕穴手法)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10. 27(2). p.42.

107) 『문정공유사(文貞公遺稿)』 「與李同甫書」, “服人素有痰疾。曾不至作擊。自去冬癡結膈間。痛掣腹脅。槎于皮膚。以致冒敗。食減者月餘。日多灸中腕。近幸入差”

같다.

1684년 2월 18일, 도제조 김수홍은 이튿날인 19일까지 중완혈 수구를 하고 가을에 다시 수구를 하자고 아뢰는다. 그리고 1684년 12월 13일 숙종의 중완혈 수구가 다시 시작된다. 당시 숙종은 10월말 외감 이후로 보이는 해수 증상과 12월 초부터 발생한 무릎 부위의 당기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¹⁰⁸⁾ 이렇게 13일부터 수구를 시작하였으며 15일 약방의 문안에 숙종은 무릎 부위의 통증이 전보다 자못 감소하였다고 말한다.¹⁰⁹⁾ 당시 숙종은 11월 22일을 기점으로 꾸준히 청수녕폐탕(淸嗽寧肺湯)을 복용하고 있었는데¹¹⁰⁾ 이는 오랫동안 숙종을 괴롭힌 해수를 치료하기 위함이었으며, 따라서 중완혈 수구는 1월에 수구했던 것과 같이 통증을 치료하는 효과를 주로 내세웠을 것으로 보인다. 1월과는 달리 오심 증세가 없었기 때문에 중완혈의 개위진구하는 효과를 겸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12월 13일부터 14, 16, 17, 18, 19, 20, 21, 22일까지 10일간 거의 매일 중완혈 수구를 진행하였다. 18일 기사를 보면 숙종은 무릎의 통증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¹¹¹⁾ 이후로도 별다른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한다.¹¹²⁾ 수구가 끝난 그 다음날, 즉 12월 23일에는 더 이상 문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¹¹³⁾ 약방의 문안은 왕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매일하지만 평소에는 5일에 한 번씩 하는데, 숙종은 이제 매일 문안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그의 건강상의 문제가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2월에 약속한 가을 수구는 12월로 시기가 조금 미뤄진 감이 있기는 하나 약속을 이행한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월과 12월 수구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먼저 2월의 수구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수구는 무릎 부위의 통증을 목적으로 수행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숙종이 당장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는 않았다.¹¹⁴⁾ 2월의 첫 수구를 진행한 17일에는 진맥을 한 기록도 남아있는데 여기서도 의관들은 숙종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말한다.¹¹⁵⁾ 반면 12월의 수구는 증상이 확실히 발생하였고, 수구를 통해서 증상의 완화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구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의 수구라는 차이가 드러난다. 이런 차이를 인지하고 다시 2월에 약속한 가을 수구를 살펴보면 12월의 수구와 가을 수구가 동일선상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중완혈을 수구한 이유는 이듬해 비슷한 상황에서 나타나는데 의관은 이를 ‘예방을 위한 수구’라고 말한다.¹¹⁶⁾

따라서 가을 수구를 약속하고 이를 이행했다고 여겨진 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숙종이 1684년 2월에 받은 뜸치료는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원래 100장의 뜸을 계획하였으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3일간 50장의 뜸만 뜨기로 결정하고 돌아오는 가을에 수구를 더 진행하기로 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해 가을 수구를 하지 않았고, 12월이 되었다. 이때 마침 숙종의 관절 통증이 재발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중완혈 수구가 재차 진행되었던 것이다.

② 중완혈 수구에 대한 숙종의 의지

두 번째로 반복적인 중완혈 수구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1684년 1월과 12월, 벌써 두 차례에 걸쳐 중완혈 수구의 효험을 본 숙종은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중완혈 수구에 관심을 쏟는다. 1684년 2월 예방 수

108) 고대원. 朝鮮 肅宗의 治病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109)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2월 15일, “答曰, 知道. 脚部牽引之候, 比前頗減”

110) 고대원. 朝鮮 肅宗의 治病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111)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2월 18일, “答曰, 知道. 脚部牽引之候, 日漸差勝矣”

112)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2월 21일, “答曰, 知道. 無事矣”

113)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2월 23일, “答曰, 知道. 無事矣, 勿爲問矣”

114) 『승정원일기』 숙종10년 2월 17일, “上曰, 脚部則雖升降之時, 今已平常”

115) 『승정원일기』 숙종10년 2월 17일, “脈度平順, 今以調勻, “脈候極好, 一如平常”, “脈度比向日極爲平穩”

116) 『승정원일기』 숙종11년 2월 15일, “今此中腕穴受灸, 非有目前症候, 且爲豫防之意”

구를 시작한 이래로 본격적인 예방 수구가 시작된 것이었다. 1685년 2월 8일, 내의원에서는 지난 12월에 멈추었다가 날씨가 보아 다시 시행하기로 했던 중완혈 수구를 재개하기로 한다.¹¹⁷⁾ 이에 수구 날짜를 2월 10일로 정하고¹¹⁸⁾ 이후로 10일, 12일 이틀간 진행한다. 이후 15일, 따뜻한 날씨에 수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의관들의 의견을 받아드려 수구를 멈추기로 한다.¹¹⁹⁾

그렇게 따뜻한 시기를 보내고 12월이 되자 숙종은 중완혈 수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는 의관들에게 중완혈 수구를 명하기에 이르러,¹²⁰⁾ 이에 의관들은 그를 말리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그 이유인즉 숙종이 지난달 중순부터 있었던 감기에서 완전히 몸이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수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¹²¹⁾ 결국 이듬해 정월이 되어 중완혈 수구를 시행한다.¹²²⁾ 이번 수구는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며, 13일에 멈춘 이유는 수구 장수가 100장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¹²³⁾

다만, 이번에 수구를 멈추게 된 과정에서는 왕과 의관사이에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 1월 12일 수구를 하던 때에 약방 도제조 김수홍은 이번 중완혈 수구는 내일까지만 하자고 말한다. 그는 이번 수구가 왕이 수라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인데 이미 해결되었고, 수구 장수도 내일이면 100장에 도달함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날씨도 너무 추

워서 수구를 하기에 적당치 않다고 하였다.¹²⁴⁾ 그러자 숙종은 중완혈 수구를 더 하자고 말한다. 숙종은 전에도 수구를 할 때 번열이 발생해서 오랫동안 수구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번열이 없고,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뜸을 뜰 때가 아니라 하고 따뜻하면 따뜻하다고 뜸을 뜰 때가 아니라 한다고 말하며 150장까지는 뜸을 뜬 이후에 다시 의논하자고 말한다.¹²⁵⁾ 김수홍이 가을을 기다려 다시하자고 재차 설득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숙종은 결국 대답을 하지 않는다.¹²⁶⁾ 이렇게 100장의 수구로 중완혈 수구를 중단하게 된 이후, 다음 가을은 커녕 3년동안이나 숙종은 중완혈 수구를 언급하지 않는다. 중완혈의 예방 효과에 대해 상당히 신뢰를 했던 그였지만, 내의원의 잦은 제한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후 다시 시작한 것이 1689년 8월이다. 이때도 숙종이 본 치료법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보인다.¹²⁷⁾ 숙종은 날씨가 좀 싸늘해졌으니 중완혈에 수구를 해서 수라염진과 수족마비의 증세를 미리 예방하자고 말한다. 이렇게 3년 만에 다시 중완혈 수구가 진행 된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1690년부터 1700년까지 11년간 매년 1~2월 중완혈 수구는 마치 연례행사처럼 항상 수행되었다.

중완혈 수구가 질병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수년간 반복되던 중, 내의원에서는 숙종에게 혈위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꺼낸다. 1701년, 내의원에서는 중완혈 수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혈위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낸다.¹²⁸⁾ 기사에 따르면 그동

117) 『승정원일기』 숙종11년 2월 8일, “去冬中腕穴受灸停止之日, 有更觀日氣加灸之教”

118) 『승정원일기』 숙종11년 2월 8일, “答藥房曰, 知道。無事矣, 更灸, 以初十日定行”

119) 『승정원일기』 숙종11년 2월 15일, “而即今日候漸暖, 地氣上升, 此時受灸, 實非其意, 諸醫等意見, 亦皆如此, 今姑停止”

120) 『승정원일기』 숙종11년 12월 9일, “伏聞入侍醫官權愉所傳之言, 中腕受灸議定事, 命下矣”

121) 『승정원일기』 숙종11년 12월 9일, “即今上候, 未盡復常, 如或有餘熱, 則此時受灸, 有似不便, 姑待上候平復, 自正月望後, 始爲受灸”

122) 『승정원일기』 숙종12년 1월 3일, “中腕穴受灸事, 曾已定奪矣。令諸醫等推擇吉日”

123) 『승정원일기』 숙종12년 1월 13일, “今日受灸時刻, 依前定以午初, 而受灸之數, 今日當準百壯, 姑爲停止之意, 昨已定奪矣”

124) 『승정원일기』 숙종12년 1월 12일, “壽興曰, 今番受灸, 只爲水刺厭進, 而殿寒若是凜冽, 醫官等, 皆以爲慮, 而外間, 亦多以爲訝矣。近來水刺, 盡盡復常, 且明日受灸, 當準百壯, 此後, 則停止宜當, 問于醫官而處之, 何如?”

125) 『승정원일기』 숙종12년 1월 12일, “上曰, 前此受灸時, 每有煩熱之候, 不能久灸, 以去春事觀之, 則亦可知矣。即今日寒如此, 非受灸之時, 而猶處於春和之時, 且既有其效, 何必徑輒, 欲於百五十壯後, 又議爲之矣”

126) 『승정원일기』 숙종12년 1월 12일, “壽興曰, 受灸, 非時而收效, 幸矣。若欲多灸, 待秋爲之, 亦似便好矣。上無發落”

127) 『승정원일기』 숙종15년 8월 13일, “藥房啓曰, 自上下教, 秋涼已生, 依前議定, 中腕受灸, 以防水利厭進, 手足麻痺之患”

안 증완혈에 뜬 뜸은 도합 1000장을 훨씬 넘긴 상황이었다. 내의원에서는 전중, 상완, 기해로 혈자리를 바꾸자고 하였고, 숙종도 찬성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해에 수구를 한 위치는 그동안 증완혈 수구를 할 때 함께 수구했던 삼리혈 하나뿐이었다. 이후로 증완혈 수구는 한동안 등장하지 않고, 대신 같은 기간(증완혈로 질병 예방을 하려했던 1~2월) 증완혈을 대신 하자고 했던 상완, 기해, 삼리와 같은 혈자리에 수구를 했으나 이 역시도 1702년은 거르고 1703년 한해 했을 뿐이며, 그 이후로는 1708년, 1710년에 삼리혈만 수구를 하였다. 이후 1713년과 1714년에 증완혈 수구를 한 기록이 있으나 이 두 차례는 모두 숙종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었지¹²⁹⁾ 그동안처럼 예방을 위해 수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질병 예방 수구가 뜸해지고, 결국 수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1710년 숙종이 언급한 내용과 관련이 높아 보인다. 1710년 2월 6일 수구를 하자는 신하들의 의견에 숙종은 증상의 치료에 별 도움이 안 되니 수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¹³⁰⁾ 이때는 이미 숙종에게 하지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자면 예방 수구라고 볼 수는 없으나¹³¹⁾ 그가 가졌던 수구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사라졌음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처럼 질병을 예방하고자 수구를 진행한 이래로 본 수구의 시행 여부에는 숙종의 의지가 깊이 관여하였다. 수구를 시행했던 초창기에는 그가 스스로 증완에 수구를 하자고 요청하기도 하였고, 또 장수

에 제한을 두는 신하들에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십 년을 넘게 수구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어느 순간 이 증완혈 수구사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도 신하들의 수구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 더 이상 증완혈 수구를 받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여준 숙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 론

숙종의 증완혈 수구사는 역대 조선의 다른 왕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독특한 의료과정이었다. 1684년을 기점으로 31년이라는 시간 중 21년에 걸쳐 보였던 증완혈 수구사에 대해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숙종의 증완혈 수구사는 21년간 행해졌으나 그 중 완전히 유사한 패턴을 보인 경우는 14년이었으며, 혈위의 변화는 있었으나 기간이 갖는 의미가 같다고 여겨지는 4년의 기록을 더하면 약 18년간 숙종은 증완혈 혹은 그와 관련된 혈자리에 수구를 하였다. 이 수구는 매해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수구 마지막 날 삼리혈을 조합하여 함께 수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수구의 장수는 100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이를 넘기기도 하였다. 수구는 항상 수구를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수구일과 시간을 선정하고 결정된 일시에 내의원에서 입시함으로써 수구가 이루어졌다.

숙종이 처음 증완혈에 수구를 한 이유는 그의 질병 때문이었다. 하지의 관절 통증과 해수, 오심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이에 내의원에서는 통풍을 치료하고 개위진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증완혈 수구를 치료법으로 제안한다. 상기 효과 중 개위진구는 당대의 의서나 일반 문집에서도 자주 보이며, 통풍을 치료하는 효과는 『침구경험방』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치료를 받은 뒤 숙종의 증완혈 수구사는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된 수구는 전적으로 숙종의 의지와 관심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28) 『승정원일기』 숙종27년 1월 19일, “藥房啓曰, 雪後寒氣甚峭, 伏未審夜來, 聖體, 若何? 受灸穴處, 與諸御醫等商議, 則以爲自上中腕穴受灸, 前後已過千狀[壯], 今番則姑爲停止, 臚中·上腕[上腕]·氣海等穴受灸, 宜當云”

129) 『승정원일기』 숙종39년 3월 25일, “近日聖候, 臚間常有似飢不飢之氣, 而水刺則頓減於前年, 臂亦有麻痺之症, 左邊忒甚云”, 『승정원일기』 숙종40년 1월 16일, “臚氣不加, 而寢睡差勝, 痰飲·口淡一樣, 瘡口流汁漸少, 而膝痺別無加減, 足部微浮之氣, 亦無所減”, 『승정원일기』 숙종40년 3월 13일, “口淡·痰飲一樣, 膝痺浮氣及上腹飽滿之氣”

130) 『승정원일기』 숙종36년 2월 6일, “上曰, 其間不差, 則當受灸, 而差減則不必受灸矣”

131) 『승정원일기』 숙종36년 2월 6일, “上候數日前, 有坐臥時失攝之節, 左邊脚部三里近處牽引”

감사의 말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민간요법 발굴 보존 및 DB구축을 위한 지식자원화](K13210)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ferences

1. Heo J. Donguibogam. Namsandang. Seoul. 2004.
2. Gwak YR. Historical Review of Lady Hyegyong's Pregnancy and Childbirth : From a Medical Perspective Based on Prescription Records from Seungjungwon-Ilg. Master diss. Kyunghee University. Seoul. 2015.
3. Hong SY. A Study of the Clinical Records in Seungjeongwon Ilgi. Ph.D diss. Kyunghee University. Seoul. 2009.
4. Kang DH. Observations of King Hyojong's medical archives through 『Seungjeongwonilgi』. Master diss. Kyunghee University. Seoul. 2010.
5. Ko DW. A Study on Disease and Treatment Records of King Sukjong of Joseon Dynasty in The Daily Record of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Ph.D diss. Kyunghee University. Seoul. 2015.
6. Kim DR. Influence of Heebin Jang's death on King Kyeongjon's health : based on the medical records from 『SeungJungWon-Ilgi』. Master diss. Kyunghee University. Seoul. 2013.
7. Kim HK. A Historical Study on Treatment Records of King Injo of Chosun Dynasty : focusing on Cases Recorded in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Ph.D diss. Kyunghee University. Seoul. 2013.
8. Kim JS. Medicine reflected in the treatments of the Kings in the Chosun period. Ph.D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05.
9. Lee SW. Observations of King Hyeonjong's Medical Archives. Ph.D diss. Kyunghee University. Seoul. 2011.
10. Park JY. A Historical Study on Treatment Records of Queen Jangyeol, the Second Wife of King Injo of Joseon Dynasty. Master diss. Kyunghee University. Seoul. 2015.
11. Cha WS.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the Medical Records in Palace. the 15th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History. 2010.
12. Hong SB. Longevity of Kings and their Causes of Death during Yi Dynasty - Based on Review of Historic Royal Archives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1991. 14(1).
13. Ko DW et al. A study on the Clinical Records of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a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2. 25(1).
14. Lee HW, Kim H. About the Diseases and Medical Treatments of King Hyeonjong, Sukjong, Gyeongjong, Yeongjo in the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6. 19(3).
15. Oh JH, Cha WS, Kim NI. A Study Of The Acupuncture & Moxibustion Fix-a-Day Method In Seunjeongwon-Ilgi.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9. 22(1).
16. Oh JH, Ahn SW. The Study on Needling Insertion Method at CV12 in Gim-gu-kyung-heom-bang.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0. 27(2).
17. Pahng SH, Cha WS. A Study of Queen Inhyun's death through the Clinical Records in Seungjeongwon Ilgi. Korea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12. 18(1).
18. Pahng SH et al. A Study on the Medical

- Records of Heebin Jang in Seungjeongwon Ilgi.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4. 27(2).
19. Seungjeongwon Secretaries. Seungjeongwon Ilki(承政院日記, The Diaries of Royal Secretariat of the Joeseon Dynasty).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2015. 10. 05)
20. Yang YS. Uirimchoaryo(醫林撮要).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BookBiblio.jsp?srchTab=1&DataID=KIOM_A238_Z_001&DataName=%E9%86%AB%E6%9E%97%E6%92%AE%E8%A6%81\(%EC%9D%98%EB%A6%BC%EC%B4%AC%EC%9A%94\)&ssot=](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BookBiblio.jsp?srchTab=1&DataID=KIOM_A238_Z_001&DataName=%E9%86%AB%E6%9E%97%E6%92%AE%E8%A6%81(%EC%9D%98%EB%A6%BC%EC%B4%AC%EC%9A%94)&ssot=) (2015. 10. 05)
21. Han KH et al. Uibangyuchi(醫方類聚).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BookBiblio.jsp?srchTab=1&DataID=KIOM_A109_Z_001&DataName=%EC%9D%98%EB%B0%A9%EC%9C%A0%EC%B7%A8%201 (2015. 10. 10)
22. Lee MS. Seohajip(西河集).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408&gunchaId=av003&munchelId=02&finId=079&NodeId=&setid=3631010&Pos=0&TotalCount=1&searchUrl=ok (2015. 09. 27)
23. Im Y. ChangkyeJip(滄溪集).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408&gunchaId=av003&munchelId=02&finId=079&NodeId=&setid=3631010&Pos=0&TotalCount=1&searchUrl=ok (2015. 09. 27)
24. Cho E. Hesailki(海槎日記).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KO&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KO&seojiId=kc_ko_m020&gunchaId=av002&munchelId=01&finId=024&NodeId=&setid=3631605&Pos=0&TotalCount=1&searchUrl=ok (2015. 09. 27)
25. Min YJ. Munjeonggongyusa(文貞公遺稿).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401&gunchaId=av003&munchelId=01&finId=080&NodeId=&setid=3560449&Pos=0&TotalCount=1&searchUrl=ok (2015. 09. 30)

